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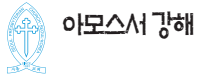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아모스서 강해

## 드고아의 선지자 아모스

(아모스 1:1-2, 7:10-17)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적으로 형편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어 일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묵히 수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소선지서 가운데서도 가장 감동적이며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서를 귀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모스의 메시지가 사회적 부정과 불의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는 종교인들의 인습, 즉 형식주의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아모스서의 설교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모스서는 유다 웃시아 왕,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에 기록되어 선지서로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첫 번 예언서입니다. 주전 750년경 아모스서가 기록될 당시 북왕국은 부자는 큰 번영을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굶주림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 1. 부르심을 받은 아모스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1:1)

하나님은 선지학교도 다니지 아니하고 선지자 교육도 전혀 받지 못한 야인 아모스를 부르시어 그로 하여금 공의를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특히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보잘 것 없는, 칭찬받을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아모스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윤리적인 사람이었고 용기있는 사람이었으며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동이었고 자기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중요한 인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적으로 형편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어 일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에서 복음의 유익을 찾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잘 것 없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묵히 수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 2. 모함 받은 아모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7:10).

사람들은 뽕나무 치는 자요 목동에 불과한 자가 어떻게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모스에게 베엘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로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운 곳입니다. 아모스는 베엘로 가서 거짓 종교와 부도덕과 사회적 불의를 무섭게 공격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종교지도자인 아마샤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모스

가 하는 것에 대해 분을 견디지 못하고 여로보암에게 가서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원수는 집안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혼드는 사람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안에서부터 흔들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복돋아 주어야 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일을 방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 하는 아모스를 모함하면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모함은,

첫째, 아모스가 왕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모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왕은 나중에 자연사했습니다.

둘째,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자기를 살피우는 자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썩어나 먹으며 예언하라고 했습니다(7:12). 당시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샤의 말은 여기서는 예언해 봐야 아무 소득도 없으니 유다 땅으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아마샤는 완전히 직업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소득을 올리고 있으니 당시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아모스의 증거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베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 입이니라”(7:13). 왕의 성소가 있는 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설교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고 하니 아모스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 3. 모호 받은 아모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녕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7:17).

아모스의 메시지를 거부한 아마샤는 결국 무서운 심판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주전 733년 앗수르의 공격을 받았고 721년에는 2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며 자기 백성들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위선을 떨쳐버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2008 흥해작전 개전

## -6월6일 새벽5시 본당에서-

- 6월 6(금)~11일(수): 자유 - 김철홍 교수(장신대, 신약학)
- 12(목)~18일(수): 평화 - 허 주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 신약학)
- 19(목)~25일(수): 정의 - 이승구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마침내 흥해작전(참모장 민순구 장로)이 눈앞으로 다가와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다. 흥해작전을 은혜 중에 개전하기 위해 준비위원들은 기도회로 모여며 계속된 회의를 통해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08년 흥해작전은 표어 '자유, 평화, 정의의 나라를 세우는 신앙을 계대하자!'에 맞춰 6월6일(금)부터 11일(수)까지 '자유' - 김철홍 교수, 6월 12(목)~18일(수)까지 '평화' - 허주 교수, 6월 19(목)~25일(수)까지 '정의' - 이승구 교수로 나누어 관련분야의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강사로 선다.

특히 이번 흥해작전은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기도와 흥해작전 공동기도제목을 함께 하게 되어 더욱 열기를 더하게 한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에 10,227평의 대지 위에 아가페 타운 건립을 앞두고 이 거대한 사업을 위하여 온 교회는 흥해작전 기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여 흥해를 가르고 마른땅 밟듯이 건너게 될 것이다.

말씀과 기도의 작전인 흥해작전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국가와 교회 가정의 흥해를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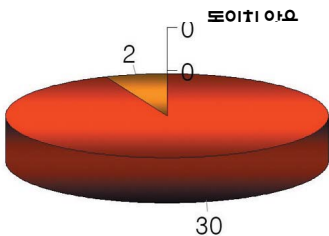
## 16차 KIMCHI 세미나 평가 - 극찬으로 넘쳐

제16차 KIMCHI 신학세미나에 대한 평가가 참가자들에 의하여 극찬으로 넘쳤다. 지난 5월 28일 수료식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32명의 프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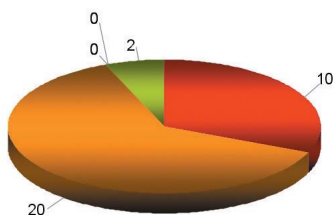
스 개혁교회 지도자들은 제16차 KIMCHI 신학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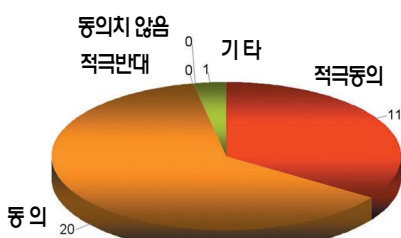
1. 김치 세미나가 한국교회 성장과 갱신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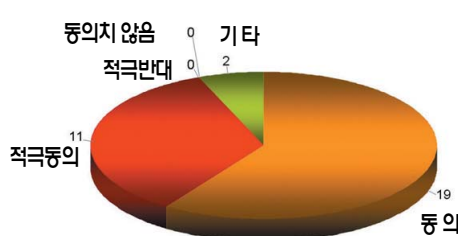
2. 김치 세미나가 한국교회와 프랑스교회 사이의 관계를 증진시켰다고 보는가?



3. 김치 세미나가 세계선교 전략의 최선의 길을 찾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는가?



4. 김치 세미나가 프랑스 개교회 성장과 갱신의 비전을 심어주었다고 보는가?



5. 김치 세미나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 새벽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프랑스 교회들과 개혁신학교에서 실천에 옮기려고 한다.
- 영접과 조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느꼈다.
- 주제를 잘 발전시킨 강의들이 깊이가 있었다.
- 신학과 교회생활 간에 실질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이종운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서, 여러 부서들의 사역과 교회 모임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 강사들의 높은 수준과 자질
- 당신들의 영접과 환대는 당신들의 믿음을 대변한다.
- 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되찾았다.
- 10일 간 조금씩 영적으로 인도되어 주님과 그의 친밀함을 회복하였다.
- 내 사역의 방향이 교회 성장 쪽으로 전환되고, 기도에 뿌리를 다시 내림
- 성도님들의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모델이 됨
- 살아있고 성장하는 교회를 보았다.
- unique하고 놀라운 세미나

## 여름철 목사복 착용

무더운 여름철 동안 모든 교역자들은 반팔 상의 목사복 셔츠를 착용함으로써 정장을 대신한다. 교역자들은 반팔 목사복을 착용하고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남녀선교회 월례회, 심방예배 등을 인도할 수 있다.

## 제3기 설교사역도고세미나 수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08년 4월 16일(수)부터 시작된 제3기 설교사역도고 세미나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한다. 제3기 수료자는 다음과 같다.

한편 4기 설교사역도고세미나는 6월4일(수) 오후1시 609호에서 개강하며 6주 동안 도고사역의 의의, 도고의 특권과 의무, 도고의 승리의 모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고, 설교사역 도고의 중요성과 도고의 실제 등에 대해서 배운다. 강사로는 정수길 목사가 선다.

### <3기 설교도고사역수료자 명단>

이민화, 엄정순, 문순례 권사, 양정실, 김초일 집사 (이상 5명)

## 에바다부 수화교실 수료

2008년 1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계속된 에바다부 수화교실이 모든 순서를 마치고 종강을 하였다. 이번 수화교실에는 초급반과 중급반에서 수료자가 나왔다.

### - 수료자 명단 -

- 초급반 : 박광식, 박희래, 이하순, 박우욱, 전미애
- 중급반 : 이상호

- 프랑스인 입맛과 한국인 입맛에 어울린 식단
- 박식과 영적 능력을 가진 강사들의 높은 자질
- 권위의 존중과 훈련의 중요성을 상기시킴
- 이 세미나는 한국선교의 전략을 보게 하였다.
- 잘 훈련된 조직, 세미나의 좋은 토픽들, 식사와 숙소가 훌륭함, 너그러운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었다.

6. 김치 세미나의 미래 계획을 위해 건설적 비판 사항이 있다면?

- 기도원에서 개인기도 시간이 없는 것이 아쉽다.
- 이미 완전에 가까우니 비판할 것이 없다.
- 상상 이상의 놀라운 세미나였다.
- 방문자들에게 실제적인 사역의 눈을 열어주었다.
- 돌아가서 두 세 사람과 함께 새벽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
- 프랑스 개혁교회의 믿을 수 없는 영적 몰락의 짐을 가지고 갑니다.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전히 복음적인 데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프랑스 교회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 - 우리는 선교 대상국입니다 -

지난 5월26일(월) 오전7시 802호 비전홀에서 16차 KIMCHI신학세미나 참여자들과 교계신문 기자, 방송국 기자와의 회견이 진행되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종윤 목사:** 지난 5월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10일간 32명의 프랑스 개혁신교 교계지도자(집례, 독립 교단 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칼빈을 낳은 곳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프랑스에 큰 빛을 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올라비에 목사님이 프랑스 교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리올 듀발 올라비에 목사:** 프랑스 개혁신교회는 16세기부터 시작되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너무 많은 핍박(카톨릭으로부터)으로 거의 모든 교인들이 해외로 망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몇은 프랑스에 남아 순교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노예선에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었으나 1905년까지 모든 교회는 정부의 운영 하에 있었습니다. 1905년 이후 정부로부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았으나 1950년대부터 프랑스 교회는 세속화의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 기독교신문 편집국 노충현 차장 : 프랑스 교회의 고민은 무엇인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당면과제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루이스 안토니 목사:** 현재 프랑스 교회의 현상은 1950년대부터 계속되는 다종교, 다종족, 세속화로 인한 교회의 쇠퇴기입니다. 다종족 현상은 과거 식민지(북아프리카 알제리 등)에서 많은 이민족과 함께 다른 문화(종교)가 유입되어 이슬람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점은 이 상황에서 교회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부터는 아프리카 이민교회와 함께 한국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도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폴 웰스 교수:** 저는 여기에 3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① 프랑스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나라로 수많은 국민이 죽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인류의 재앙을 겪었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유럽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기술, 경제발전, 능력향상 등에만 치중해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 바로 인간의 물질 추구가 기독교(복음)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② 프랑스 개혁신교회는 개혁의 세계적 본이 되는 교회이나 진정으로 칼빈의 가르침에 선 교회는 없습니다. 대다수가 신학이 종교 다원주의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③ 기독교 하면 프랑스에서는 천주교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에서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기자: 이슬람과의 관계는?

**폴 웰스 교수:** 프랑스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두 종교 간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슬람 국가 출신들은 폐쇄적인 문화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회 차원에서 두 종교 간의 대화는 이루어져 문화적으로 활동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종윤 목사: 한국교회와 프랑스 교회가 상호간에 배



나님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만약에 한국을 통해 중국으로 복음이 들어가 전체가 기독교화 되면 21세기의 역사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 순례자: 프랑스 교회 쇠퇴의 제일 원인을 종교다원주의로 꼽고 계신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주세요.

**폴 웰스 교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배울 점은 '우리처럼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성주의, 인본주의의 물결이 휩쓸었습니다. 이것이 다원주의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 신앙, 모든 것이 성경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세워,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인정하는 복음주의적 성경 연구를 해야 합니다.

· 기독교보 김성진 차장: 프랑스에서 개혁신교 교인이 1~2%인데 사회로부터의 신뢰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안티기독교 세력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리올목사:** 프랑스 교회가 좋은 예입니다. 기독교는 박해와 박해를 겪으며 성장해온 종교입니다. 프랑스교회는 잘못된 것에 대해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점이라고 느꼈으나 나중에 빛이 되었습니다.

**웰스교수:** 안티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화 운동으로 인해 기독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방주의, 여러 종교의 영적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사회적 현상입니다.

**페드로 목사:**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알자스르렌'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으로 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프랑스 교회 목사는 마치 공무원 같고 기독교인은 모두 100만 명 정도이며 이중 80%가 루터파입니다. 프랑스에서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한국에서 100명이 되는 것과 같을 만큼 허약합니다. 프랑스는 자유를 강조하나 기쁨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극도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개혁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종윤 목사:** 내년은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프랑스는 순교지였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이성주의가 나타나 종교다원주의로 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또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프랑스는 자유주의를 강조하다보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는 어느 하나 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종윤 목사:** KIMCHI세미나에 지금까지 101개 국가 참여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로  
프랑스 교회 정체성 흔들려

프랑스는 KIMCHI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받았습다.

우리도  
새벽기도회 하겠습니다.



을 접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개혁신교회는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루이스 목사:** 저는 가장 큰 기독교 주간지 발행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에게 어떤 종교가 가장 가까운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 정도가 개혁신교회를 가장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1~2% 정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티유 장로:** 우리는 주일날 교회학교를 돌아볼 기회를 갖았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노력했는지? 복음이 프랑스 젊은이들의 삶에 의미를 주고 있는지 등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리올 목사:** 프랑스는 선교의 땅입니다. 사회적 참여, 교회의 참여를 균형있게 함으로 선교의 땅이 복음화 되도록 기도하고, 세속화가 크게 우려됩니다.

**폴 웰스 교수:** ① 부흥-우리는 1세기 동안 한국교회의 대부흥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다. 또한 6.25 이후의 부흥도 온 유럽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어 부흥이 일어나 전 유럽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벽기도회 하겠습니다.

② 헌신-한국교회의 순교역사를 배웠습다.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습다.

③ 미션 비전-프랑스 교회에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하

홍해작전을 기다리며

# 승전가 부르는 홍해작전

## 최광성 집사(2008홍해작전 참모)

2008홍해작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로 극복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서울교회 성도들은 작전명령에 순종하여 6월6일부터 6월25일까지 20일간 새벽5시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 교회, 성도 개인과 가정의 모든 기도제목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 드림으로 승리의 개성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2008 홍해작전의 관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다락방 모습처럼 홍해작전을 통해서 서울교회 다락방에도 기도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구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

드려야 합니다.

**둘째,** 아가페타운 건립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간구해야하며, 교회학교 모든 성도가 모닝콜과 키편을 실시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며 협조하기 바랍니다.

**셋째,** 홍해작전 주력부대는 본당 강대상 앞쪽 중앙에 자리를 배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넷째,** 교구별 도표를 만들어 매일매일 교구의 참여도를 게시하고, 교구별 출석율을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1위로 승리한 교구는 홍해작전 승전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섯째,** 5행시 (아가페타운 또는 사랑의 마을)를 주제로 하여 다락방가족 단위별로 (4명이상 참여 다락방) 응모, 우수다락방 중 순위를 결정하여 시상 할

니다.

**여섯째,** 또한 20일 동안 개근한 성도 모두에게 특별 시상을 합니다.

2008 홍해작전은 서울교회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말씀과 기도의 축제가 되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홍해작전을 기대합니다.

##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 예배 특별순서는 우리교회 장윤식 집사의 클래식 기타 독주로 준비됩니다.

독일 예선 폴크방 국립음대를 졸업한 장 집사는 민속적이고 통속적인 대중적 악기인 기타를 고도의 예술성을 지닌 악기로 변신 발전시킨 정통 유럽의 기타 교육을 받아 한국에서 클래식 기타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총신대 컨서바토리에 출강하고 있는 장 집사는 오늘 저녁 Bach의 "예수 우리의 기쁨과 소망" 이외에 2 곡으로 찬양 드린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6월 2일(월) 몽골 울란바트라 대학 졸업식과 목회자, 신학생, 선교사,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특강을 하고 5일(목) 귀국한다.

■ 전화번호변경: (12교구)김예환 권사(010-7202-9497)

■ 수상: 김연옥 권사(3교구) 중국 심양 국립요녕성미술관 주관 초대전 금상, 최문주 집사(3교구) 동 초대전 미술협회작가상, 한국초대전: 5월28일-6월2일, 신강갤러리

■ 주간식당 봉사: 안드레션교회(6.1) 베드로선교회(6.8)

■ 금주의 식사: 유일상 집사 윤숙희 권사  
조영식 성도 이관모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KIMCHI 세미나

# 교계 각 언론사에서도 대서특필



우리교회가 주관한 16차 KIMCHI 세미나에 대한 한국교계의 평가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IMCHI 세미나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보도한 신문사들도 있었다.

한국기독교공보는 한국교회의 성장동력 '기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교회의 쉬지 않는 기도와 성경 중심의 신앙을 프랑스 개혁교회 지도자들이 KIMCHI 세미나를 통해 배웠다고 한다. 목회자사모 신문은 KIMCHI 신학세미나의 역사를 소상히 소개하고 지금까지 101개국 683명의 참여자들이 한국교

회의 새벽기도를 수입해갔다고 한다. 기독교연합신문은 프랑스교회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제하의 KIMCHI 인터뷰 기사를 실었고 기독교 신문은 한국교회 기도와 복음화 열기 체험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미래한국신문은 佛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 통해 소망'이라는 기사에서 프랑스 교회 지도자들이 서울교회 KIMCHI 세미나 통해 교회회복방안을 모색했다고 했다. 이밖에 TV 뉴스와 라디오, 인터넷 등의 기사도 16차 KIMCHI 세미나에 대한 보도를 했다.

## 전도학교 제 33기 개강

주일반 - 6월 1일 오후 1시 30분 - 903호  
수요반 - 6월 4일 오후 8시 15분 - 609호

전도의 이론과 실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2. 아가페 타운 건설,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3. 6.6-25까지 열리는 홍해작전 승리를 위하여
4.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